

개헌, 국민 합의가 우선이다



기고
김용식
전 국민의힘 경기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지난 8일, '개헌'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우원식 의장은 눈물까지 보이며 개헌을 저지한 야당을 비난했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번 사태는 여권의 일방통행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다. 때문에 헌법을 고치는 일은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에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중차대한 작업이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의 발의 과정을 보면,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원내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제야당인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채 밀어붙였다.

우리 헌법이 개헌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히 규정된 이유는 명확하다. 헌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여야의 폭넓은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개헌 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개헌 반대는

나란 옹호'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 조차 무시한 다수의 횡포다.

개헌의 주요 내용에는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명시' 등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계엄권을 통제하려 바꾸는 몇 줄의 헌법 조항 때문에, 북한 도발이나 국가 비상사태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제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국가 대응에 치명적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화 과정을 헌법 전문에 심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며, 유공자 관련 특혜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과 UN군의 참전, 중공군의 개입 등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지켜낸 '자유 의 역사'를 넣자거나, 또는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로 눈부신 산업화를 만들어 낸 역사는 왜 포함하지 않는지는 국민의 반문에 이번 개헌이 어떤 답을 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졸속 개헌의 비판은 1년 전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된 적

이 있다. 2025년 4월 7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모 언론에 '뜬금없는 개헌론, 단호하게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개헌 논의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정치권이 제 맘대로 개헌안을 만드는 방식"이라며 단호히 반대했다.

더욱이 여권은 '개헌'을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가 헌법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피의자가 특검을 임명하고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나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사법 3법' 강행 처리야말로 명백한 위헌적 행태 아닌가. 현행 헌법도 무시하면서 헌법을 고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국민이 동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태워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었다. 우원식 의장 역시, 본인 임기 안에 졸속으로 헌법을 고쳐 성과 내기에 급급했던 건 아닌지 눈물을 거두고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정된 합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개헌을 잘 준비하길 바란다. /전 국민의힘 경기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증시의 여름, 골목의 겨울



기자 수첩
허정운
(자본시장부)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되는 것 같아. 장이 안 열리는 주말이 지겹고 월요일이 기다려질 정도라니까!"

최근 기자의 지인이 건넨 말이다.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열기는 뜨겁다.

증권시장은 벌써 한여름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가 맞물리며 한국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전성기에 들어선 듯하다.

하지만 골목시장은 아직 혹한이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올해 1분

기 말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분류한 '추정 손실' 규모는 2조996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이상 연체됐거나 폐업·파산 등으로 사실상 때인 돈이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채 하나둘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렇다고 증시의 상승을 거품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주식시장은 본래 현실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며 미래의 기대를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삼법 개정과 주주환원 기대를 감안하면 '만스피(코스피 1만)' 역시 단순한 공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승의 온기가 아직 골목경제까지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랠리는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 그리고 정책 기대가 이끌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대출로 시간을 벌었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빚의 무게를 견디고 있고, 영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법정관리로 내몰리고 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코스피 7800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추정 손실 2조9963억원은 현재의 고통을 드러낸다. 하나는 증권시장의 한여름을, 다른 하나는 골목시장의 한겨울을 말한다.

지금의 상승장이 거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수의 기록만 보고 한국 경제 전체가 회복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짜 호황은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그 상승의 온기가 시장 밖으로 퍼져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증권시장의 뜨거움이 골목시장의 겨울까지 달을 때, 그때의 '만스피'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zelkov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2일 (음 3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0년생** 집을 떠나면 고생만 가득합니다. **72년생** 윗사람의 도움으로 큰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84년생** 과음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 49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61년생**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고 합니다. **73년생** 정성껏 구하면 재물을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85년생** 연수를 가게 되어 이상형의 이성을 만납니다.
- 50년생** 현 상태를 무난히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62년생** 큰 어려움이 없는 하루입니다. **74년생** 가는 길이 매우 험하니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86년생** 서북방이 길하니 참고하세요.
- 51년생** 무난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냅니다. **63년생** 사람을 배반하거나 속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75년생** 명예를 실추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87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2년생** 주변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64년생**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76년생** 모든 손해보는 일은 삼가하게 좋습니다. **88년생** 오래 전 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 53년생**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65년생** 휴식을 취하세요. **77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89년생** 사업을 하고 있다면 때가 좋지 못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54년생** 금전에 일회일비 하지 마세요. **66년생**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8년생**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90년생** 성공이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앎을 것입니다.
- 55년생**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67년생** 마음을 편하게 갖고 즐겁게 사세요. **79년생** 사업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91년생** 늘 단전에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안정하세요.
- 56년생** 큰 거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80년생**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92년생** 함께하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 57년생** 모든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69년생** 치열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1년생** 구설수를 주의하세요. **93년생** 좋은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 58년생** 좋은 운은 반드시 곧 찾아오게 됩니다. **70년생** 주변에 귀화를 도우려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 힘을 내세요. **82년생** 등산을 하면 좋습니다. **94년생** 늘 안전부찰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 59년생**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71년생** 힘든일이 있지만 정신만 차리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83년생**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95년생** 귀인의 소개를 받아 취직을 하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기도성취 사찰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삼천리 방방곡곡에 명찰 즉 이름난 사찰이 들어서 있다. 금수강산의 백미로 불리는 금강산에는 이제는 터만 남은 장안사와 유점사 묘향산에는 보현사 설악산에는 백담사 지리산에는 쌍계사와 화엄사 강원도 오대산에는 월정사와 상원사 등 산이면 산마다 내놓으라 하는 사찰과 암자가 셀 수가 없을 정도다. 그 수려한 풍광을 배경으로 절이 자리 잡은 곳을 보노라면 경치도 경치지만 기운이 남다른 느낌이 든다. 명산대찰뿐만 아니라 작은 암자들까지도 어찌 그리 터를 잘 잡았는지 절로 감탄하게 된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오대 보궁은 경건함은 물론이고 신묘로움을 넘어서 상서롭기 이를 데 없다. 진신사리를 모시게 된 시기도 모두 신라 시대 때의 일이니 천년 하고도 수백 년 더 이전의 일이며, 신라의 자장율사가 모신 만큼 오대산 중대사자암, 영월 법흥사, 정선의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양산 통도사로서 태백의 등줄기에 이어지니 에너지의 기맥이 척추를 타고 흐르는 모양새다.

그래서인가,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 태백의 산세 못지않게 영험한 기도터가 각별히 많은 곳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현세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관음기도나 약사기도를, 조상님들의 천도를 위해서는 지장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다. 또한 어떤 기도든지 한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소문난 곳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팔공산 갖바위이다. 전국에서 불자들이 널리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다. 불자들치고 팔공산 갖바위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다. 이외에도 각자 인연 있는 사찰이나 암자에서 가피를 받았다는 얘기는 불자들에게 있어 차고 넘친다. 기도는 무엇보다 간절함이다. 기도하는 이의 간절함과 하심은 기도성취의 필요조건이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 원력을 담아 발원 올려보길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8	5		4	2		7	
			9	6				
		3		2	4			
		6		5			8	
4		9		1			2	
7		5			6			
		7	4			9		
			6	2				
2		4	1			5	3	6

	8			7				
	3			2	1	5	9	
	5	2	4			7		
1	6			2		3		
			8		5			
		7		6			2	5
		6			9	5	4	
4	9	5	1				7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레임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5		4	2		7	
			9	6				
		3		2	4			
		6		5			8	
4		9		1			2	
7		5			6			
		7	4			9		
			6	2				
2		4	1			5	3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0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